

일자리 비상 ... 지역 고용시장 침체 가속화

통계청, 3월중 고용 동향 발표

광주, 인구 늘었지만 3천명 증가 그쳐 전남, 작년 동기보다 무려 7천명 감소 전국 18만명 취업 ... 2005년이후 최저



지난달 전남지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가 하면 광주도 감소세를 면하는 수준을 보이는 등 들어 지역 고용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내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

닫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취업자는 8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보다 7천명(0.8%) 감소한 것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용사정은 '뒤틀림'을 겪고 있다.

광주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63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천명(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광주는 1년새 15세 이상 인구가 9천명이나 늘어나 간신히 취업자 감소를 면한 상황이다. 인구 증가로 인해 취업자 수만 소폭 늘

었을뿐 고용사정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특히 전국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4천명(0.8%) 늘었는데 그쳤다. 이는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 고용사정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6%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 29만3천명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다시 7개월 만에 10만명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분야에서 각각 5만8천명, 4만4천명 감소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3만

5천명)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취업자가 각각 8만7천명, 9천명이나 감소하면서 젊은층의 취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최근 고용사정 악화는 비임금·임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았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731만1천명으로, 7만9천명 감소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각각 16만5천명, 3만9천명이나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3월중 임시·일용직의 감소는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인해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취업자 증가폭이 적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제선 항공료 또 '깡충'

내달부터 ... 유가 급등 두달연속 올라

국제선 항공료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두달 연속 크게 오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한달동안 항공유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현재보다 2단계 높은 16단계로 적용하기로 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기준 7단계에서 16단계로 확대된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수준인 16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4월에 국제선 왕복항공료가 최대 7만원 정도 오른 상황인데 유류할증료에 대한 최고 단계 적용으로 5월에 추가로 최대 3만6천원 정도 인상돼 유럽, 미주 노선의 경우 불과 2개월 만에 10만원 이상 오르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국내 여행사들의 패키지상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해외 여행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월에 인상되는 국제선 왕복항공요금의 경우 장거리 노선은 기존보다 3만6천원,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6천원, 일본 노선은 8천원이 오른다.

/연합뉴스

획일적 '미분양 정책' 지역 건설업체 '고사'

주택산업연구원 지적 ... 미분양 11만가구 추가 금융비용 2조원

수도권·지방 등 세분화, 공급 과잉·수요·거래 감소 막아야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및 미분양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잉과 무차별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수요와 거래 감소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민간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11만가구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총 22조2천억원(수도권 4조원, 지

방 18조2천억원)의 자금이 적체돼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2조6천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획일적인 미분양 정책보다는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으로 나눠 별도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분석 결과 공공보다는 민간의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이점을 감안

해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회사는 분양가 할인, 분양조건 개선, 임대사업자 전환, 미분양 일괄 매각, 주택상환사채나 미분양 투자펀드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물량과 공급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최근 '주택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동백씨 추출물 '레드폴로' 출시

16일 경남 통영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동백씨 추출물 화장품 '레드폴로' 출시기념식에서 제품과 함께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만수 장관 '선물환 수수료 노리는 사기꾼' 발언

은행권 "정당한 대가" 강력 반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사실상 은행들을 겨냥해 선물환 수수료를 노리는 '사기꾼'으로 비판하자 은행권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강 장관의 발언은 금융산업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이날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이라며 "(은행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며 환율 헤징을 권유해 수수료 받아 먹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선물환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은행들이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선물환조기약정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가령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업체가 받을 외화를 한꺼번에 달러당 900원대에서 고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수출업체로부터 선물환을 대거 매입한 뒤 시장에 다시 매도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선물환 매도 주문이 넘쳐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솔립현상'이 발생했다.

이때 은행들은 선물환 계약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선물환 수수료는 계약 만기, 계약금, 업체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의 0~0.5% 범위에서 천차만별이다.

다만 이같은 수수료는 환위험을 없애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문제시할 만한 사안 아니라는 것이 은행권 항변이다.

A은행 관계자는 "환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언급하지 않고 수수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리한 확대 정책보다는 전반적 환경개선 더 중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외환위기 후 우리나라의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자본축적 둔화 때문이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 속도의 둔화가 위기 이전 현재보다 높은 자본축적 속도 때문인 만큼 자본 축적 속도를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투자확대정책을 펴는 것 보다는 전반적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회계 분석을 한 결과 자본투입 증가율이 경제위기 이전 1991~1995년 연평균 11.6%에서 2001~2005년 4.7%로 둔화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밝혔다.

성장회계는 경제성장률,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하는 기법이다. 노동투입 증가율도 1991~1995년 연평균 4.2%에서 2001~2005년 연평균 1.3%로 하락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같이 요소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오히려 1991~1995년 연평균 0.8%에서 2001~2005년 연평균 2.0%로 높아졌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고 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자본축적 둔화의 원인이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전 등 발전 3사 260명 '합동 공채'

다음주 접수 중복지원 불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3사가 다음주부터 공채를 진행한다.

1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3개사는 21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접수한다. 총 채용규모는 260여명이다. 이들 기업은 필기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는 합동 채용을 진행하는 관계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입사경쟁의 허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는 전했다. 또한 이들 공기업은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별로 한전은 사무 분야 43명, 기술 분야 141명 등 모두 18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어학능력이 토익기준으로 사무 분야 750점, 기술 분야는 6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우수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2차 필기시험에서는 상식 20문항, 전공 80문항이 출제된다.

한국중부발전은 기술분야에서만 35명 내외의 인원을 뽑는다. 지원자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1개 외국어 성적 우수자, 토익기준 70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은 상식 16문항, 전공 64문항으로 이뤄졌다. 이어 논술 및 인·적성검사-인성면접, 토론면접 등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사무직 6명, 기술직 34명 등 40명을 모집한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전형 과정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무역수지 적자 폭 급증

올들어 60억달러 육박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수출은 99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5% 증가했고 수입은 1천54억4천800만 달러로 28.2% 늘어나 이 기간 무역수지는 59억4천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3월에는 무역수지가 24억4천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수출은 360억4천600만 달러, 수입은 368억6천30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8억1천700만 달러로 확정됐다.

3월 무역통계 확정치를 지식경제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잠정치와 비교하면 수출은 1억5천700만 달러, 수입은 900만 달러가 각각 줄었고 무역적자는 1억4천9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강일	연락처
한국정보보호인식(주)	[취업지원]정보보호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3	062-521-2496
(주)우리	인전관리자 경력직	고졸/경력3년	2200~2400	04/19	062-361-7106
비즈니스코리아 광주센터	경력업무 및 사무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9	062-351-1108
서울검사(주)	비파괴시험원(검사원) 정규사원(전국)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9	062-369-0790
ING생명(본사)	[광주본사]직영센터TM상담원-월30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2-3452-2612
해성종합건설	경리,관리업무 경력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4/21	062-374-6412
사빈산업(주)	[금호생명]해피콜 정규직 사원 (주5일근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23	062-224-7238
광림직업전문학교	취업지원/시설관리,운전원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3	062-529-300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메트라이프에서 인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2-457-4400
(주)피루	[전남순천] 총무/인사 경력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4/25	061-755-5114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에서 토목직	고졸/경력5년	3000~3200	04/25	062-959-1593
(주)이투테크건설	경리회계업무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1000~1200	04/26	062-373-1072
성문테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6	062-952-6713
(주)한진디엔비	건설기계 제작, 조립, 유압, 제관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30	062-953-451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